

# 내릴줄 모르는 외식 물가

10년간 하락요인 있어도 오르기만… 서민가계 큰 부담

광주 29%·전남 27%↑…김밥 25%·라면 20% ‘껑충’

우리나라 외식 품목의 물가는 가격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조사결과 외식품목인 쇠고기(한우)의 값은 광주의 경우 전년 동월 보다 23.1%, 전남은 뷔김닭은 10% 인상되는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로 전체 평균 물가 2.0%보다 0.7% 포인트 높았으며 조사 대상 외식 품목 39개 가운데 가격이 내린 품목은 단 1개도 없었다.

또 ‘2000년 이후 호남지역 소비자 물가 변화’에 따르면 2008년 호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8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광주 29.1%, 전남 26.7% 상승했다. 특히 외식 재료가 되는 식료품·비주류의 경우 광주가 같은 기간 42.1%, 전남은 35.4%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외식 물가의 전년 동월비는 1999년 1월(-1.4%)부터 11월(-0.3%)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매월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외식 물가는 가장 많이 올랐던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비교하

면 10월의 외식 물가는 9.2%나 급등했다. 이는 외식업자들이 올해 유가와 원자재값 하락 등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올려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외식 매뉴인 뷔김닭은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7.2%나 폭등했다. 단체 회식에 주로 먹는 매뉴인 삼겹살은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6.1%, 삼계탕은 5.5%, 돼지갈비는 4.6% 올랐다.

학교급식비와 구내식당 식사비도 각각 4.6%와 3.9%가 급등해 학생 및 직장인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석됐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인 피자와 햄버거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4.5%와 3.7%가 상승했고 스테이크(3.0%), 스파게티(2.9%), 돈가스(2.5%), 라면(2.5%) 등도 올랐다.

10월에 작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인 품목은 39개 조사 대상 가운데 식당에서 사먹는 죽, 소주, 과실주와 아이스크림뿐이었다.

한편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밥은 물가 상승률이 무려 25.2%에 달했으며 라면(20.4%), 피자(18.3%), 뷔김닭(16.8%), 자장면(14.6%), 짬뽕(13.4%)도 크게 올랐다. 전월비로는 생선초밥의 물가는 7월 0.1%, 8월 0.8%, 9월 0.3%, 10월 0.1% 등 4개월 연속 비례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수 많이 먹으면

고혈압 유발률 낮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보다는 국수를 더 많이 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산 1대학 식품영양학과 정진은 교수는 2007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중 식이섭취 조사에 참여한 4천86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먹은 음식종류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5.7%가 면류를 먹었는데 냉면과 칼국수, 가락국수 등을 포함한 국수류를 먹은 사람이 15.4%로 라면(10.3%)보다 많았다. 또 면류를 즐겨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혈압이 낮은 편인데다 고혈압 및 대사증후군 유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연합뉴스



## 친환경농산물 591억 학교 급식 공급

### 전남도 내년 지원 계획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해 내년에도 학교급식에 591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전남도 ‘2012 JCOMM 총회’ 유치 나서

〈세계 해양학·기상학 합동기술위원회〉

#### 박지사 출국… 11일 결정

전남도가 미국·독일·프랑스 등 세계 50여 개 국의 해양학·기상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2012년 제4차 세계 해양학·기상학 합동기술위원회(JCOMM) 총회’ 유치에 나섰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오는 2012년 5월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 ‘제4차 JCOMM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8일 모로코 순방길에 올랐다.

JCOMM총회는 해양학과 해양기상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국의 정부 대표단이 참가해 각국에서 발생한 해상 자연재난, 해양기후변화 등에 대한 활동을 보고하고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4일 모로코에서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2009년 JCOMM총회’는 미국, 중국 등 50여 개 회원국들

이 참가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총회 개최국을 결정한다.

현재 유치 경쟁에는 차기 총회 개최 대북인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차기 총회 개최지 결정은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8시(한국시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국산 쌀국수

#### 학교급식 제공

농립수산식품부는 11월부터 두 달간 국산 쌀로 만든 국수를 시중 음식점에 공급하고 쌀 가공식품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에 있으면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설렁탕 업소와 프랜차이즈 국수 전문점이 쌀국수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또 전국 10개 초등학교에 쌀자장면, 쌀빵 등 쌀 가공식품으로 급식 메뉴를 편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수 사리뿐 아니라 국수 전문점에도 쌀국수를 공급해 비빔국수, 잔치국수 등으로 쌀국수의 사용 영역을 넓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다우너 소 도축 금지

앞으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제 있는 소(다우너 소)는 도축해 식용으로 쓸 수 없게 된다.

농립수산식품부는 7일 주제 있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관심 끄는 ‘친일인명사전’

일제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8일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 놓인 ‘친일인명사전’을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 CGI센터 건립 첫삽

〈컴퓨터 특수효과 제작〉

#### 송하동서 오늘 기공식

컴퓨터로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만드는 CGI(Computer Generated Image) 센터(조감도) 견립사업이 본격화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일 CGI센터 견립 부지인 광주시 남구 송하동 현장에서 센터 견립 기공식을 갖는다. CGI센터는 영화 ‘해리포터’처럼 컴퓨터 특수효과 영상을 제작·연구하는 곳이다.

오는 201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첫삽을 뜨는 CGI센터는 연면적 1만4천286㎡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공사비는 340억원이다.

센터에는 다목적 스튜디오, 종합집설, 공동제작실, 모션캡쳐 스튜디오, 가상현실(VR) 스튜디오 등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CGI센터는 컴퓨터 영상제작과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산업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합편집실, 공동제작실, 모션캡쳐 스튜디오, 가상현실(VR) 스튜디오 등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CGI센터는 컴퓨터 영상제작과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산업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합명 공고**

주식회사 대웅에스엔티(“대웅”)와 주식회사 대웅테크(“대웅”)는 서기 2009년 10월 29일 각각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웅”은 “대웅”을 협력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웅”은 협력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합법에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본 공고제일 이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반대와 이에 공고함.

서기 2009년 11월 09일  
“대웅” 주식회사 대웅에스엔티  
광주광역시 광산구 창학동 985-10  
대표이사 강 용 선

“대웅” 주식회사 대웅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창학동 985-10  
대표이사 강 용 선

‘안중근 의거 100년’을 우습게 만들다

(제)전라남도生물산업진흥재단 공고 제 2009 - 44호

###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소장초빙공고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에서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2009. 11. 9. ~ 11. 26. 10:00까지

2. 조건 및 책임

1. 대상

2. 대상

3. 대상

4. 대상

5. 대상

6. 대상

7. 대상

8. 대상

9. 대상

10. 대상

11. 대상

12. 대상

13. 대상

14. 대상

15. 대상

16. 대상

17. 대상

18. 대상

19. 대상

20. 대상

21. 대상

22. 대상

23. 대상

24. 대상

25. 대상

26. 대상

27. 대상

28. 대상

29. 대상

30. 대상

31. 대상

32. 대상

33. 대상

34. 대상

35. 대상

36. 대상

37. 대상

38. 대상

39. 대상

40. 대상

41. 대상

42. 대상

43. 대상

44. 대상

45. 대상

46. 대상

47. 대상

48. 대상

49. 대상

50. 대상

51. 대상

52. 대상

53. 대상

54. 대상

55. 대상